

다바루자카 세이난 전쟁 자료관

소규모로 운영되는 다바루자카 세이난 전쟁 자료관은 1877 년, 세이난 전쟁에서 최대 규모의 전투를 펼친 다바루자카 전투의 옛 전쟁터에 지어졌습니다. 다바루자카 전투는 3 월 4 일부터 3 월 20 일까지 17 일간에 걸쳐 펼쳐졌으며, 그 결과 중앙 정부군이 사이고 다카모리가 이끄는 반란군에게 승리했습니다. 두 구릉지 사이에 골짜기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던 당시의 옛 전쟁터는 현재 벚꽃과 철쭉이 심어진 공원이 되었습니다.

무사들의 시대가 끝나고 1868 년에 메이지 정부가 수립된 이후, 다양한 개혁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사쓰마번(지금의 가고시마현)의 무사들은 자신들의 지위가 위협받고 있다고 느낀 나머지 도쿄로 진군하기로 결심한 것이 세이난 전쟁의 발단이었습니다. 반란군은 도쿄로 북상하면서 메이지 정부에 충실한 군세가 주둔하던 구마모토성을 공격하여 성을 포위했습니다. 구마모토성을 잃게 되면 약점이 드러나고, 지방에서 일어난 반란이 전국 규모의 내전으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정부는 승리에 대한 결의를 다지며 포위를 풀고자 정부군의 부대를 파견했습니다. 정부군이 병사 수에서 반란군을 크게 웃돌며 영국에서 수입한 총기 등 원거리전에서 유리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검술에 능했던 반란군은 접근전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습니다.

관내 전시 - 전쟁의 과정

첫 번째 전시실에서는 전쟁에 이르게 된 경위를 알아봅니다. 두 번째 전시실에서는 다바루자카 전투를 재현한 영상과 디오라마, 조명, 효과음 등을 통해 당시 전장의 분위기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재현된 장면은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장소에서 실시된 발굴 조사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전시실에서는 정부군과 반란군의 복장 및 무기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반란군은 자신이 직접 준비한 옷을 입고 있었던 반면, 정부군의 징집병에게는 제복이 지급되었습니다. 정부군이 세이난 전쟁에서 사용한 주된 총기는 당시 최신식에 가까웠던 후장식 스나이더총으로 구식이었던 전장식 총보다 훨씬 빠른 장전이 가능했습니다. 한편, 반란군에서는 사용된 탄환을 녹여 다시 주조하여 재사용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에서 반란군의 상대적인 약점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전투 자금을 보충하기 위해 반란군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화폐를 따로 인쇄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관과 가까운 곳에 당시 전쟁터와 가까워 피해를 입었던 창고를 복원한 ‘단콘노이에(탄흔의 집)’가 있습니다. 단콘노이에의 내부는 자료관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수많은 희생자를 낸 세이난 전쟁을 계기로 사노 쓰네타미 백작(1822-1902)이 설립한 하쿠아이샤의 훗날 일본 적십자사로 발전한 경위를 소개하는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